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권 2호 (2014년 6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한국판 부모 양육효능감 검사(K-PSOC) 및 배우자 양육협력 검사(K-PAI)의 타당화 연구	김정미 · 임희선 · 허성호
4세 실행기능과 6세 읽기 능력간 관련성: 단기종단적 탐색	김연수 · 박금주
관찰 학습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모방특성: 인과적 이해를 중심으로	정혜린 · 방희정
우울한 노인의 담화에 나타나는 자전적 기억의 일화 및 비일화 인출양상	김영경
빈곤 청소년의 양육자 변경 빈도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관계에서 부모 및 친구 관계의 매개효과	설경옥 · 백상은 · 이선아 · 박지은
거짓말과 참말 이해에 대한 상황적 요인의 영향: 4세 아동의 자료	송미리 · 송현주
감정 고려가 만 4세 아동의 분배 행동에 미치는 효과	유하나 · 이지현 · 송현주 · 김영훈
중년기의 성숙한 노화와 죽음 태도 및 죽음 대처 유능감의 관계	정영숙 · 이화진

발행처 : 한국발달심리학회

인쇄일 : 2014년 6월 15일

발행인 : 박혜원(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발행일 : 2014년 6월 15일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복지학과(내)

제작처 : 책과공간

전 화 : 052-259-2367

(02-725-9371)

편집위원장 : 정윤경(가톨릭대학교)

편 집 위 원 : 김혜온(목포대학교)

박영신(경북대학교)

송하나(성균관대학교)

송현주(연세대학교)

이현진(영남대학교)

정영숙(부산대학교)

조영희(California State)

심 사 위 원 : 박금주(서울대학교)

김근영(서강대학교)

김도연(이화여자대학교)

김민희(한국상당대학원대학교)

김수정(서울대학교)

김연수(서울대학교)

김정미(한솔문화센터)

김혜리(충북대학교)

김희화(부산대학교)

문혁준(가톨릭대학교)

박창호(전북대학교)

박혜원(울산대학교)

방희정(이화여자대학교)

성은현(호서대학교)

성현란(대구가톨릭대학교)

송하나(성균관대학교)

송현주(연세대학교)

신나나(이화여자대학교)

신은수(덕성여자대학교)

심희옥(군산대학교)

안정신(부산대학교)

엄진섭(충북대학교)

유 경(한림대학교)

유순화(부산대학교)

이승복(충북대학교)

이승연(이화여자대학교)

이승진(서울대학교)

이종구(대구대학교)

이종숙(덕성여자대학교)

이현진(영남대학교)

장유경(한솔교육문화연구원)

장혜인(성균관대학교)

정명숙(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조아미(명지대학교)

조영일(성신여자대학교)

조증열(경남대학교)

진영선(경북대학교)

최영은(중앙대학교)

최윤영(한양사이버대학교)

최은실(가톨릭대학교)

최해연(한국상당대학원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한국발달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발달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평을 게재한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한국심리학회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독이 가능하다. 비회원의 구독에 관해서는 편집위원회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란다.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published quarterly-annually
by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annually and carries research articles based on empirical data & theoretical review. Subscription inquiries and manuscript submission should be directed to: Edit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Korea.

Editor : Yoon-Kyoung Jeong(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ociate Editor : Hye-On Kim(Mokpo National University) Young-Shin Park(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a-Na Song(Sungkyunkwan University) Hyeon-Ju Song(Yonsei University)

Hyeon-Jin Lee(Yeungnam University) Young-Sook Jeong(Busan National University)

Young-Hee Cho(California State University)

원고 제출 및 작성 요령

1. 한국심리학회지: 발달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이론논문, 개관논문, 경험논문 및 자료이다. 상세한 사항은 2003년 8월에 한국심리학회에서 제정한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 지침”(이하 지침)을 참조하기 바란다.
2. 본 학회지에 게재를 희망하는 원고는 어느 때나 편집위원회의 e-mail로 전달하면 된다(kjspp.editor@gmail.com). 단, 국내외의 다른 논문집에 게재되었거나 심사중인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제출된 원고가 다른 논문이나 책을 표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게재할 수 없다.
3. 원고의 형태는 한글로 작성한다. 본문은 신명조체 10호 크기로 하고, 장평 95, 자간 -10, 줄간격 160으로 하여 작성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제목의 수준과 표기방식은 지침이 권하는 바를 따른다. 본 학회지의 한 페이지에는 한글로 약 1,800자, 영문으로 약 3,700자(약 500단어)가 들어감을 고려하여 원고를 작성한다.
4. 제출된 원고는 학회지 논문심사위원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의 최종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짧도록 하며, 게재기로 결정된 원고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제목, 저자, 주소 및 연락처(전화 및 이메일)를 표기해야 하며 표지를 제외한 모든 면에는 1부터 연속적 숫자를 부여하여 쪽 번호를 붙인다.
6. 모든 연구논문은 150단어(600자)안팎의 국문초록, 영문초록 및 주요어를 포함해야 한다. 영문초록은 Psychological Abstracts 잡지에 실릴 것이므로 APA 출판 규정에 맞게 쓰여야 한다.
7. 모든 그림이나 표는 원고 말미의 별지에 하나씩 제시하여야 한다. 그림(figure와 graph)과 표는 가능한 명료하고 간결하게 만들어야 한다.
8. 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에 써 넣고(예: 그림 1. 처치효과 상호작용의 도해), 표의 제목은 표의 위에 써 넣는다(예: 표 1. 조건별 평균 회상 반응수). 본문에서의 그림과 표의 언급은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언급한다(예: 그림 1에서..., 표 1에서...).
9. 문헌인용을 본문에서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이복동(1970)은	Köhler(1940)는
이복동과 김명기(1970)는	Köhler와 Wallach는
이복동, 김명기, 및 신영식(1970)은	Wallach 등(1951)은
이 결과(이복동, 1970)는	그의 연구(Köhler, 1940)는
이들의 연구(이복동, 김명기, 1970)는	이 연구(Köhler & Wallach, 1944)는
이들의 조사(이복동 등, 1970)는	이 연구(Wallach et al., 1951)는
...와 같이 논했다(이복동 등, 1970).	...와 같이 논했다(Köhler, 1940).
10. 단, 누구 등이라고 한다면 누구 et al.를 쓰려면 먼저 본문 중에 생략된 연구자의 이름이 전원 소개된 다음 이라야 한다. 한국인의 이름은 본문과 참고문헌에 모두 성과 이름을 함께 표기한다. 참고문헌에서의 문헌 나열은 먼저 한글문헌을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어 서양어 표기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예: 강동단, 김천란, 천일야 (1970).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요인분석적 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2, 20-25.
김천란 (1975). 한국인의 언어생활, 서울, 불광사.
Miller, G. A. (1950). *Language and communication*. New York: McGraw-Hill.
Osgood, C. E. (1983). Psycholinguistics. In S. Koch(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pp. 244-416). New York: McGraw-Hill.
Werner, H., & Chandler, K. A. (1950). Experiences on sensory-tonic field.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42, 346-350.
11. 원고를 준비할 때 지켜야 할 기타사항은 지침을 참조하며,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국심리학회지가 발행한 APA Publication Manual 최근 판을 참조하기 바란다.
12. 저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소량의 별쇄본을 제공받는다. 별쇄본은 저자의 부담으로 추가 제공될 수 있다.

한국발달심리학회 윤리규정

- 한국심리학회지 윤리규정과 연구진실성준수서약은 학회 홈페이지(www.baldal.or.kr)를 참조하기 바란다.
-

거짓말과 참말 이해에 대한 상황적 요인의 영향: 4세 아동의 자료*

송 미 리

송 현 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4세 아동이 상황에 따라 거짓말 또는 참말을 한 화자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다르게 하고, 화자의 정서 역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지 보고자 하였다. 아동들은 주인공이 규범을 위반한 상황(이를 닮지 않은 상황 등)이나 예의가 요구되는 상황(친구의 새 운동화가 멋있지 않다고 생각한 상황 등)에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참말을 하는 이야기를 들은 후 화자의 도덕성을 평가하고, 화자의 정서적 경험에 대하여 추론하였다. 실험 결과 아동들은 규범 위반 상황보다 예의 요구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 화자를 더 착하다고 평가하였다. 예의 요구 상황에서는 참말을 한 경우보다 거짓말을 한 경우를 더 착하다고 평가하였다. 정서 추론에서는 주인공 진술의 진위 여부만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 화자가 참말을 했을 때보다 거짓말을 했을 때 더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5-6세와 달리 4세의 경우 도덕적 평가 능력이 성별로 다르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4세 아동도 더 연령이 높은 아동이나 성인과 유사하게 상황적 요인에 따라 참말과 거짓말이 지니는 도덕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지만, 정서적 결과에 상황이 미치는 영향의 이해는 미숙함을 보였다.

주요어 : 반사회적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도덕적 평가, 정서 추론

* 실험을 도와준 연세대학교 발달연구실 연구원들과 학부생 연구 조교, 연구에 협조해주신 부모님 및 참가 아동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3-A2033375).

[†] 교신저자: 송현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20-746)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E-mail: hsong@yonsei.ac.kr

정직성은 신뢰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덕적 가치로 고려되곤 한다. 때문에 우리사회를 비롯한 여러 사회에서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고, 거짓말로 인하여 생기는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하면서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여기게 한다. 하지만 정직성의 가치가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지는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때때로 사실을 직설적으로 말할 때 호감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기 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선물이 마음에 든다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한 상대의 체면과 감정이 손상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그 사람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때때로 거짓말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때의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일반적인 형태의 거짓말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를 배려하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진짜 생각과 반대되는 말을 할 때, 이것을 ‘선의의 거짓말(white lie)’이라고 한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개인적 이득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반사회적(antisocial)’ 거짓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친사회적(prosocial)’ 거짓말이라고 일컫기도 한다(Talwar & Crossman, 2011). 이러한 선의의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부정적인 의도가 있어서 행해지기 보다는 대인관계를 순조롭게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지므로 관습적으로 용인되곤 한다(Bok, 1978; Nyberg, 1993; Sweetser, 1987; Talwar & Crossman, 2011).

선의의 거짓말 산출 능력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종류의 거짓말이 학령 전기인 3세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결과를 밝혀왔다(강현경, 박영신, 2014; Talwar & Lee, 2002; Talwar, Murphy & Lee, 2007). 해외 연구의 경우, Talwar, Murphy와 Lee(2007)는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은 상황을 이용하여(undesirable gift paradigm) 3-11세 아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았다. 아동은 연구자와 함께 게임을 한 후 선물을 받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아닌 비누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 이후 연구자가 선물이 마음에 드는지 물어보자 68%의 아동이 마음에 든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였다.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선물이 마음에 드는 이유에 대하여 합당한 설명을 하는 등 더욱 정교하게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

3-6세 한국 아동의 친사회적 거짓말 산출에 대하여 연구한 강현경과 박영신(2014)에서는 아동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신이 주인공이라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답하게 하였다. 친사회적 거짓말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이야기에는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빵이 맛이 없었던 상황, 생일 선물로 로봇을 받고 싶었는데 책을 받은 상황, 친구에게 안경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상황 등이 등장하였다. 아동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할 것인지 사실과 다르게 말할 것인지 선택하게 한 결과, 선의의

거짓말을 하겠다고 선택하는 반응이 3-4세 아동에게서도 나타났으며, 5-6세가 되면서 더욱 증가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은 선의의 거짓말이 학령 전기부터 시작되며 아동이 학령기에 이르면서 이러한 반응이 더욱 증가함을 보여 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동기도 발달하는데, 자신을 보호하려는 동기에서 타인을 배려하기 위한 동기로 점차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Xu, Bao, Fu, Talwar, & Lee, 2010).

이처럼 선의의 거짓말 산출이 학령 전기 아동에게서 발견된다는 증거는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반면, 학령 전기 아동의 선의의 거짓말 이해 능력은 아직 미성숙한 것으로 다수의 연구 자료들이 보고해왔다.

예를 들어 Walper와 Valtin(1992: Talwar & Lee, 2002에서 재인용)에서 10세 아동은 선의의 거짓말을 한 이야기 주인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6세와 8세 아동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ussey(1999)는 4세 아동들에게서 선의의 거짓말을 반사회적 거짓말보다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이들을 구분하는 능력이 나타나지만 8, 11세 아동보다는 미성숙한 수준임을 보였다. 국내 연구들은 6세 이하의 아동들이 선의의 거짓말과 일반적인 거짓말에 대한 도덕성 평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선의의 거짓말과 일반적인 거짓말이 유발한 정서적 결과의 차이도 이해하지 못함을 보고해왔다(권은영, 이현진, 2012; 박영아, 2008).

이러한 선의의 거짓말 이해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도형의 모양과 개수를 달리하거나(e.g., 별 1-3개 중 고르게 함. 별의 수가 많을 수록 착한 것), 표정이 다른 얼굴 그림들을 사

용하여(다섯 개의 표정-짙그리고 우는 얼굴(많이 잘못했다), 약간 짙그린 얼굴(조금 잘못했다), 무표정한 얼굴(보통이다), 약간 밝은 얼굴(조금 잘했다), 아주 밝게 웃는 얼굴(많이 잘했다)-그림 중에서 하나를 선택) 주인공의 도덕성을 평정하게 하였다(권은영, 이현진, 2012; 박영아, 2008; Bussey, 1999). 거짓말을 한 주인공이 느꼈을 기분을 추론하는 과제에서는 죄책감이나 기쁨 등의 감정을 얼마나 느꼈을지 길이가 다른(e.g., 0, 6cm, 12cm, 18cm) 막대를 사용하여 나타내도록 하였다(권은영, 이현진, 2012; Bussey, 1999).

학령 전기 아동의 경우 이러한 과제에서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인지적 처리 부담을 느껴서 선의의 거짓말과 다른 거짓말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보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징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별 또는 다양한 얼굴 표정들이 상징하는 도덕적 가치, 그리고 막대의 길이와 정서적 경험 간의 상징적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징 처리는 인지적 처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둘째, 연속선상에 놓인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나쁘다 등의 이분적인 선택지 중에 선택하는 것보다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한 연구에서는 거짓말과 참말에 대한 도덕적 평가 및 정서적 경험에 대한 추론의 측정 방법을 좀 더 쉽게 변형해본 결과 학령 전기 아동도 선의의 거짓말의 도덕적 가치 및 정서적 결과를 이해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송미리와 송현주(2014)에서는 아동이 연구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데 사용되는 선택지의 수를 줄이고, 도덕적 평가나 정서적 반응과 관련하여 좀 더 직접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선택지를 사용함으로써 과제의 난이도를 낮추었다. 우선, 도덕적 평가 과제에서는 ‘OO(주인공)는 착한 아이야, 나쁜 아이야?’라는 단순한 질문을 하였다. 즉, 선택지의 수가 2개 밖에 없었고, 시각적 상징을 사용하는 대신에 5-6세 아동이면 이해할 수 있으며 도덕적 판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단어를 사용하여 질문하였다. 주인공의 정서 반응 추론 과제에서는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막대들이 아닌,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표정 그림(☺, ☹, 😐)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 5-6세 아동에게도 참말 및 거짓말을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 능력이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5-6세 아동들은 도덕적 평가 과제에서 반사회적인 거짓말을 한 주인공보다 선의의 거짓말을 한 주인공을 더 착하다고 판단하는 반응을 보였다. 잘못을 저지른 상황(e.g., 자기 전에 이를 닦지 않은 상황)에서는 참말을 한 경우보다 거짓말을 한 경우를 더욱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예의가 필요한 상황(e.g., 친구의 새 운동화가 멋있지 않다고 생각한 상황)에서는 거짓말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거짓말 혹은 참말을 한 주인공이 느낄 정서를 추론하는 과제의 경우 5-6세 아동은 예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경우에, 진실을 말한 경우보다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송미리와 송현주(2014)의 연구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4세 아동도 이야기 주인공의 참말과 거짓말에 대하여 도덕적 평가를 내리고 주인공의 정서를 추론할 때 상황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인 거짓말 외에 다른 종류의 거짓말에 대한 아동의 도덕적 평가 및 정서 추론

능력을 알아본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e.g., 권은영, 이현진, 2012; 박영아, 2008; Bussey, 1999; Heyman, Sweet, & Lee, 2009; Lee, Xu, Fu, Cameron, & Chen, 2001; Xu, Bao, Fu, Talwar, & Lee, 2010; Xu, Luo, Fu, & Lee, 2009). 예외적으로 Bussey(1999)에서는 4세 아동이 포함되었고, 연구 결과 4세 아동도 선의의 거짓말과 반사회적 거짓말의 차이에 대한 민감성을 보임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송미리와 송현주(2014)의 5-6세 아동보다 더 어린 4세 아동들도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국에는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문화 특정적 요인이 존재한다. 한국 문화의 경우 개인적인 가치보다 집단을 중시하고, 독립적이기보다는 상호 의존적인 성향을 지닌다(Choi & Lee, 2002). 이러한 문화 특정적 가치를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아동은 타인을 배려하여 나타나는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를 생애 초기부터 보일 수 있으리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의 시발점으로서 본 연구는 만 4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실험에는 4세 아동 14명(평균 연령: 53.9개월, 연령 범위: 49.5-59.0개월, 남아 7명, 여아 7명)이 참가하였다. 추가로 5명의 아동이 본 실험에 참가하였으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거나(4명) 모든 질문에 획일적으로 대답하여

(1명) 자료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연구 참가 아동은 서울 및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육아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여 모집하였다.

실험자극

실험자극으로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짧은 이야기가 사용되었다. 이야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이야기의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도 제작, 사용되었다. 각 아동은 이야기 상황의 종류(규범 위반, 예의 요구)와 주인공 진술의 진위 여부(참말, 거짓말)에 따라 달라지는 4가지 유형의 이야기를 한 유형 당 한 가지씩 들었다. 각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린이였고, 규범 위반 조건의 이야기에는 엄마가 자기 전에 이를 닦으라고 했는데 주인공 아이가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이를 닦지 않은 상황, 아빠가 밥 먹기 전에 사탕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상황, 친구의 크레파스 하나를 몰래 자기 주머니에 넣은 상황, 선생님이 초콜릿을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고 했는데 혼자 먹은 상황 등이 있었다. 예의 요구 조건의 이야기에는 선생님이 인형을 선물해주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 아빠가 가방을 사주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 친구의 새 운동화가 멋있지 않다고 생각한 상황, 엄마의 새 모자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한 상황 등이 있었다. 각각의 이야기는 선행 연구(권은영, 이현진, 2012; Bussey, 1999; Happé, 1994)에서 사용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송미리와 송현주(2014)에서 수정하여 사용한 이야기와 동일하였다. 연습 시행과 본 과제에 사용된 이야기 및 그림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연습 시행

“여기 수지랑 현아가 나왔네. 수지는 인형놀이를 좋아해. 현아가 수지한테 ‘수지야, 너 공놀이 좋아하지?’라고 물어봤는데, 수지가 ‘응, 공놀이 좋아해.’ 이렇게 말했어.” (그림 1)

규범 위반 상황

“여기 지훈이랑 엄마가 나왔네. 엄마가 지훈이한테 ‘지훈아, 자기 전에 이 닦아야 돼.’라고 말하셨는데 지훈이가 이를 안 닦았어. 나중에 엄마가 지훈이한테 ‘지훈아, 너 이 닦았어?’라고 물어보셨는데, 지훈이가 ‘아니요, 이 안 닦았어요.’(참말 조건)/ ‘네, 이 닦았어요.’(거짓말 조건)라고 말했어.” (그림 2)



그림 1. 연습 시행에서 사용한 그림



그림 2. 규범 위반 상황에서 사용한 그림의 예시



그림 3. 예의 요구 상황에서 사용한 그림의 예시

예의 요구 상황

“여기 미나랑 미나 친구 세훈이가 나왔네. 세훈이가 새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미나는 그 운동화가 멋있지 않다고 생각했어. 세훈이가 미나한테, ‘미나야, 내 운동화 어때? 멋있지?’라고 물어봤는데, 미나가 ‘아니, 운동화 안 멋있어.’(참말 조건) ‘응, 운동화 멋있다.’(거짓말 조건)라고 말했어.” (그림 3)

절차

실험은 서울 소재 모 대학교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다. 보호자는 실험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실험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아동이 실험실 환경 및 실험자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대기실에서 놀이 시간을 가졌다. 이후 실험자가 아동과 함께 독립된 공간에 들어가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자와 아동은 컴퓨터 모니터가 놓여있는 탁자 앞에 나란히 앉았다. 먼저 실험자는 아동에게 실험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고, 정서 추론 과제에서 쓰이는 표정 그림(☺, ☹, 😐)에 대하여 아동이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각 그림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였다.

이후 본 시행을 시작하기 전에 연습 시행을 거쳐서 아동이 과제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연습 시행과 본 시행 과정 모두 컴퓨터 모니터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서 실험자가 아동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총 소요 시간은 약 5-10분 정도였다.

한 아동이 총 4가지의 이야기를 들었으며 이야기 순서는 참가자 간에 역균형화 되었다. 한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실험자는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순서로 네 가지 질문을 제시하였다.

(1) 내용 이해

“OO(주인공)가 △△(상대방)한테 뭐라고 말했어?”

(2) 도덕적 평가

“OO가 ~(주인공 진술 내용)라고 말했는데, OO는 착한 아이야 나쁜 아이야?”

(3) 정서 추론

“OO가 ~라고 말했는데, 그 때 OO는 기분이 어땠을까?”

(4) 진위 여부

“OO가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진짜야, 거짓말이야?”

점수화

각 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점수화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주인공 진술 내용 이해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상대방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질문했을 때 정답을 말하면 1점, 틀린 답을 말하면 0점을 부여하였다.

참말 및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평가

상대방에게 한 말에 근거하여 주인공이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평가하게 하였을 때 착한 아이라고 대답하면 1점, 나쁜 아이라고 대답하면 0점을 부여하였다.

참말 및 거짓말에 대한 정서 추론

상대방에게 한 말에 대하여 주인공 자신이 어떤 기분을 느낄지 예측하게 하였을 때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대답하면(㉠ 그림을 선택하면) 1점, 보통일 것이라고 대답하면(㉡ 그림을 선택하면) 0점, 기분이 나쁠 것이라고 대답하면(㉢ 그림을 선택하면) -1점을 각각 부여하였다.

주인공 진술의 진위 여부 이해

주인공이 상대방에게 한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물어보는 질문에 정답을 말하면 1점, 틀린 답을 말하면 0점을 부여하였다.

본 논문의 저자 중 한 명이 모든 참가 아동의 반응을 점수화하였고, 아동이 각각 어떤 조건에 할당되었는지 모르는 다른 연구보조자가 아동의 자료 중 약 25%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반응을 점수화하였다. 두 명 간에 점수화 결과의 일치도는 100%였다.

결 과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종속 측정치(주인공 진술 내용 이해, 주인공 진술의 진위 여부 이해, 주인공 진술에 대한 도덕적 평가, 주인공의 정서 추론)에 대하여 2(상황: 규범 위반 상황, 예의 요구 상황) x 2(진위 여부: 참말, 거

짓말) x 2(성별: 남, 여)의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인공 진술 내용 이해

주인공 진술 내용 이해에 대한 질문은 아동이 실험 상황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주인공 진술 내용에 대한 아동의 이해 반응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인공 진술의 진위 여부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근접하였다($F(1, 12) = 4.69, p = .05$). 이는 4세 아동이 이야기 주인공의 진술이 사실인 경우($M = .89, SD = .32$)를 거짓인 경우($M = .71, SD = .46$)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F(1, 12) = 5.52, p < .05$), 여아가($M = .96, SD = .19$)이 남아($M = .64, SD = .49$)보다 이야기 주인공의 진술 내용을 더 잘 이해하였음을 나타낸다.

이야기 상황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F(1, 12) = .30, p = .59$), 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없었다($F(1, 12) < 1.23, ps > .29$).

주인공 진술의 진위 여부 이해

진위 여부 이해 질문은 각 상황에서 이야기 주인공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고, 아동들이 보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자료 분석 결과, 이야기 상황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F(1, 12) = 6.82, p < .05$). 예의 요구 상황에 있어서 남자 아동

이 여자 아동보다 진위 여부를 더 잘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고($t(52) = 1.58, p = .12$), 규범 위반 상황에서는 이러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t(52) = -.40, p = .70$). 그 밖의 유의미한 주효과나 상호작용은 없었다($F(1, 12) < 3.26, ps > .10$).

주인공의 진술에 대한 도덕적 평가

이야기 주인공이 상대방에게 한 말에 근거하여 주인공을 도덕적으로 평가해보도록 하였을 때 아동이 보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그림 4).

우선 이야기 상황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F(1, 12) = 24.00, p = .00$), 예의 요구 상황($M = .64, SD = .49$)에서 규범 위반 상황($M = .36, SD = .49$)보다 참말 혹은 거짓말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진위 여부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 12) = .73, p = .41$).

다음으로, 이야기 상황과 진술의 진위 여부 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있었다($F(1, 12) = 5.33, p < .05$). 사후 분석 결과 예의 요구 상황의 경우, 주인공이 참말을 했을 때보다 거짓말을 했을 때 더 착하다고 평가하였지만($t(52) = -2.42, p < .05$), 규범 위반 상황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52) = .81, p = .42$). 거짓말의 경우 예의 요구 상황에서의 거짓말이 규범 위반 상황에서의 거짓말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t(52) = 3.23, p < .01$), 참말의 경우는 두 상황 간의 차이가 없었다($t(52) = .00, p = 1.00$).

또한, 이야기 상황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다($F(1, 12) = 6.00, p < .05$). 사후 분석 결과 규범 위반 상황의 경우,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보다 주인공의 진술에 대하여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t(52) = 2.42, p < .05$), 예의 요구 상황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52) = .81, p = .42$). 또한 여자 아동의 경우 규범 위반 상황보다 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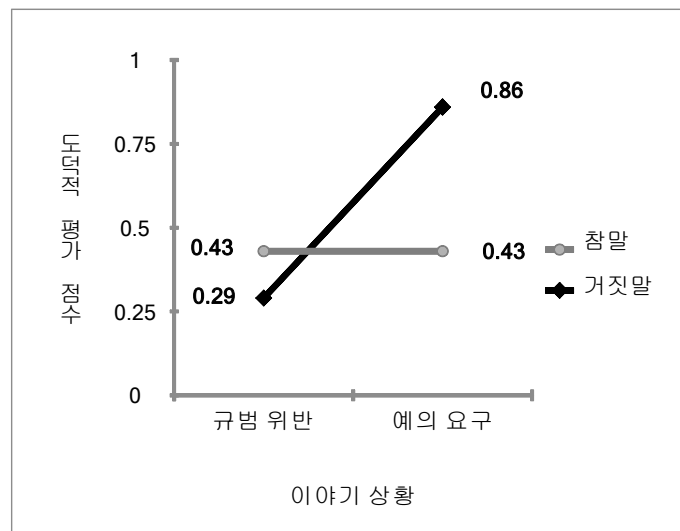


그림 4. 주인공의 진술에 대한 4세 아동의 도덕적 평가

요구 상황에서 주인공의 진술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t(52) = 2.42, p < .05$), 남자 아동에게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52) = .81, p = .42$).

주인공의 정서 추론

주인공이 참말 또는 거짓말을 한 후 어떤 정서를 느낄지 예측하게 한 결과 4세 아동이 보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그림 5).

먼저 진위 여부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는데($F(1, 12) = 10.50, p < .01$), 아동은 주인공이 참말을 한 경우($M = -.21, SD = .79$)보다 거짓말을 한 경우($M = .29, SD = .81$)에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예측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주인공 진술의 진위 여부와 아동의 성별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 12) = 10.50, p < .01$). 사후 분석 결과 남자 아동의 경우, 주인공이 거짓말

을 했을 때 참말을 했을 때보다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t(52) = -3.44, p < .01$), 여자 아동에게서는 거짓말과 참말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52) = .00, p = 1.00$). 거짓말의 경우,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에 비해 주인공의 정서가 더 긍정적일 것이라고 추론하는 경향이 보였으나($t(52) = 1.96, p = .06$), 참말의 경우 이러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52) = -1.47, p = .15$).

이야기 상황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F(1, 12) = .61, p = .45$), 이야기 상황과 다른 변인들 간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다($F(1, 12) < .64, p > .29$).

논 의

본 연구에서는 5-6세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송미리와 송현주(2014)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4세 아동도 서로 다른 상황에서의 참말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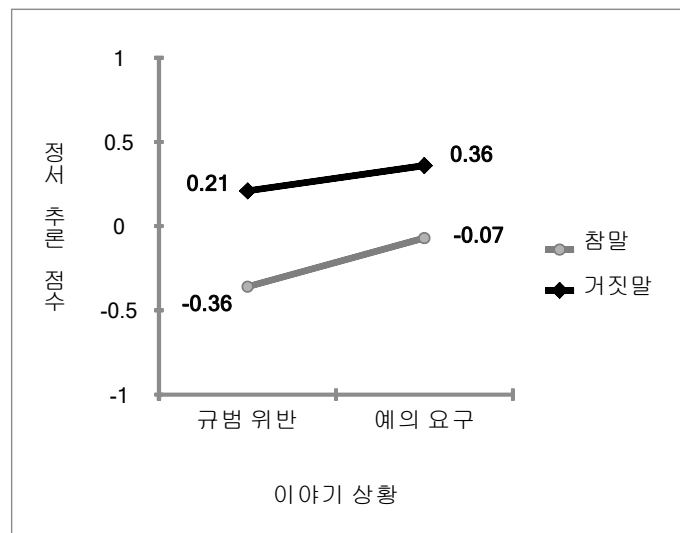


그림 5. 주인공의 정서에 대한 4세 아동의 추론

거짓말에 대한 도덕적 평가 및 정서 추론을 달리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인공의 진술에 대하여 아동이 내린 도덕적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4세 아동과 송미리와 송현주(2014)의 5-6세 아동 간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도 5-6세를 대상으로 한 송미리와 송현주(2014)의 연구에서처럼 주인공의 도덕성 평가에서 이야기 상황과 주인공 진술의 진위 여부 간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거짓말 조건 안에서 비교했을 때, 주인공이 예의 요구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를 규범 위반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거짓말을 한 주인공에 대하여 평가할 때 상황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4세 아동에게서도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6세 이하의 아동이 선의의 거짓말과 다른 거짓말 간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이전 연구 결과들(권은영, 이현진, 2012; 박영아, 2008; Walper & Valtin, 1992; Talwar & Lee, 2002에서 재인용)과 대조되는 것이다. 한편 4세 아동들이 8-11세 아동보다 참말과 거짓말의 진위 여부 이해 수준은 낮았으나 참된 진술 및 거짓 진술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과제에서는 다른 연령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Bussey(1999)의 결과와는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령 전기 아동은 연령이 낮을수록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인지 능력은 다소 미성숙하나, 상황을 고려하면서 참말 및 거짓말의 도덕적 측면을 평가하는 능력은 서로 다른 연령 간에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주인공의 정서 추론 반응에서도 본 연구의 4세 아동 자료와 송미리와 송현주(2014)의 5-6세 아동 자료 간에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4세 아동은 일반적으로 주인공이 참말을 한 경우보다 거짓말을 한 경우에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권은영과 이현진(2012), 송미리와 송현주(2014)에서 5세와 6세 아동이 보인 반응과 유사한 것이다. 특히 반사회적 거짓말을 한 주인공이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추론한 결과는 ‘행복한 위반자 현상(happy victimizer phenomenon)’으로 설명할 수 있다(권은영, 이현진, 2012; 송미리, 송현주, 2014). ‘행복한 위반자 현상’은 옳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이 죄책감 등의 부정적 정서가 아닌 긍정적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여기는 반응으로 4-6세 아동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아동기 규율에 대한 이해와 정서 귀인 능력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현상이다(Krettenauer, Malti, & Sokol, 2008). 이러한 반응은 결과 중심적 사고로 인한 것일 수 있는데, 위반 행위를 하였지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만족하여 기분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Keller, Lourenço, Malti, & Saalbach, 2003; Nunner-Winkler & Sodian, 1988). 본 연구에서도 4세 아동은 주인공이 규범 위반 상황에서 죄책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기보다는 원하는 바를 달성한 것(주인공이 친구의 크레파스를 몰래 가져간 것 등)으로 인한 만족감 등의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느낄 것이라 예측하는 반응을 보였다.

본 연구의 4세 아동과 송미리와 송현주(2014)의 5-6세 아동의 결과 간에는 위에 언급된 유사점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차이들도 존재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4세 아동은 예의 요구 상황에서 주인공이 참말을 한 경우보다 거짓말

을 한 경우를 더 착하다고 평가하였고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는데, 송미리와 송현주(2014)에서 5-6세 아동들은 예의 요구 상황에서 참말과 거짓말의 도덕성 평가를 다르게 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되는 결과이다. 5-6세 아동이 선의의 거짓말을 반사회적 거짓말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했지만, 선의의 거짓말을 같은 상황에서의 참말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의 요구 상황에서 사실을 말하는 것도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송미리와 송현주(2014)에서 참가 아동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들에게 실시한 것과 유사한 과제를 실시해본 결과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것의 순기능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선호에 관하여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상대방에게 잘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등과 관련하여서도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당장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도움을 주는 길이라고도 하였다. 이처럼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진정으로 상대를 돕는 일이라고 여기는 경우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판단할 수 있고, 화자가 긍정적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대개의 경우 '예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상대에게 사실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보다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앞서게 되지만 (Lakoff, 1973; Lee, & Ross, 1997; Sweetser, 1987),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원칙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처음 보는 사람이나 상대적으로 심리적 거리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차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여 친사회적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반면,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등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Williams, Kirmayer, Simon과 Talwar(2013)에서 6-9세 아동의 경우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달라졌는데, 부모님보다 낯선 어른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강현경과 박영신(2014)에서도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상의 인물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알아본 결과, 3-6세 여자 아동의 경우 부모님보다는 할머니나 친구에게 친사회적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등 대상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였다.

둘째, 도덕적 평가 반응에서 4세 아동의 경우 이야기 상황과 성별 간 상호작용이 있었는데, 규범 위반 상황에 있어서 여아가 남아보다 주인공의 진술에 대하여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의 요구 상황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여아의 경우 규범 위반 상황보다 예의 요구 상황에서 주인공의 진술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남아는 이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성차는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여아가 규범 위반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 주인공은 나쁜 아이라고 평가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 남아들보다 여아들에게서 도덕적 규범에 대한 이해가 앞서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3-5세 아동의 경우 도덕적

위반 상황을 허용하겠다는 비율이 여아에 비하여 남아에게서 더 높다고 보고되었다(부성숙, 2011).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은 패러다임을 사용한 연구에서 5세 이상 아동에게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송미리, 송현주, 2014) 이러한 성차에 대해서는 추후 반복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주인공의 정서에 관한 질문에서 4세 아동과 5-6세 아동이 보인 반응에서도 차이점이 존재하였다. 4세 아동의 경우 주인공의 정서 추론 반응에서 진술 내용의 진위 여부와 아동의 성별 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남아는 예의 요구, 규범 위반 상황 모두에서 주인공이 참말을 했을 때보다 거짓말을 했을 때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예측한 반면, 여아들은 이러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여아들은 두 상황 모두에서 참말과 거짓말의 정서적 결과가 유사할 것이라는 추론을 보였다. 여아들이 남아들처럼 단순히 거짓말이 참말보다 긍정적 정서를 유발할 것이라는 추론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적어도 4세에는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타인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더 다각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함의한다. 예를 들어, 4세 여아들은 남아들보다 타인의 '기쁨'을 더 정확히 예측하고, 기쁨의 원인을 더 잘 이해한다(송하나, 2005). 이러한 다양한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타인의 정서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은 5-6세에 이르면서 더욱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원정애, 송현주, 2009; 윤지영, 송현주, 2013; 이현진, 2009).

넷째, 참말과 거짓말을 잘 구분하는지 알아보는 진위 여부 이해 질문에서는 4세 아동에게서 이야기 상황과 성별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송미리와 송현주(2014)에서는 이야기 상

황의 주효과가 있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세의 경우 예의 요구 상황에서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진위 여부를 더 잘 이해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4세 아동은 이야기 주인공이 상대방에게 한 말을 기억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주인공이 거짓을 말했을 때보다 사실을 말했을 때 진술 내용을 더 잘 기억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4세 아동의 경우 이야기 주인공이 참말을 했을 때는 행동이나 생각과 진술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거짓말을 했을 때는 주인공의 행동 혹은 마음 상태와 진술 내용이 상충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지적 부담을 겪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참여한 아동의 수가 14명으로 비교적 적은 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참가자 수가 적을지라도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은 실험 가설을 받아들여도 되며, 모집단에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Field, 2009). 통계적으로 볼 때, 참가자 수가 늘어나면 효과 크기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아동이 참여할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하면, 주인공의 진술에 대한 도덕적 평가 및 주인공의 정서 추론에 있어서 본 연구의 4세 아동은 송미리와 송현주(2014)에서 5-6세 아동이 보인 결과와 질적으로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즉, 4세 아동도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일반적인 거짓말보다 선의의 거짓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상황적 요소를 고려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서

추론의 경우, 주인공이 참말을 했을 때보다 거짓말을 했을 때 더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것이라고 보고한 것도 4세 아동과 5-6세 아동에게서 모두 나타났다.

한편, 5-6세 아동과 다르게 4세 아동에게서는 모든 종속 측정치에서 성별과 다른 변인 간 상호작용이 나타났는데 이 시기에 남녀 아동이 도덕적 평가 및 정서 추론 능력에 있어서 각기 다르게 발달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아동기 선의의 거짓말 표현에 관하여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된 것처럼(Popliger, Talwar, & Crossman, 2011; Talwar & Lee, 2002b; Talwar, Murphy, & Lee, 2007; Xu, Bao, Fu, Talwar, & Lee, 2010), 한국에서도 선의의 거짓말과 관련하여 산출 시기뿐만 아니라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다면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선의의 거짓말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 것인지, 상대의 마음에 대하여 예측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마음이론 능력과 선의의 거짓말 이해 및 평가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연령이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정서적 측면보다 언어 발달 혹은 억제 능력 등 인지적 측면에서의 개인차도 선의의 거짓말 이해 및 평가 능력과 관련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의의 거짓말 이해 능력을 연구함에 있어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상황에서의 선의의 거짓말 사용에 대한 이해 및 평가 반응을 살펴본다면(e.g., Broomfield, Robinson, & Robinson, 2002; Xu, Luo, Fu, & Lee, 2009) 한국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해외 자료들과의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현경, 박영신 (2014). 학령전기 아동의 연령, 성별, 의도적 통제에 따른 친사회적 거짓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1), 1-18.
- 권은영, 이현진 (2012). 한국 아동의 거짓말 유형에 대한 이해, 도덕적 판단, 정서반응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1), 117-133.
- 박영아 (2008). 아동의 거짓말에 대한 이해, 도덕적 판단 및 정서 반응의 발달. *한국생활과학회지*, 17(6), 1079-1091.
- 부성숙 (2011). 유아의 성에 따른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개념과 반응. *대한가정학회지*, 49(9), 1-13.
- 송미리, 송현주 (2014). 착한 거짓말과 나쁜 참말? 5-6세 아동의 상황에 따른 거짓말과 참말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1), 55-71.
- 송하나 (2005). 4 세 아동의 정서재인, 정서조망수용, 정서추론에서의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4), 17-33.
- 원정애, 송현주 (2009). 타인의 감정, 바람,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한국 아동의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4), 57-71.
- 윤지영, 송현주 (2013). 양보 행동 동기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 성인과 학령전기 아동의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1), 277-291.
- 이현진 (2009). 한국 아동에서 살펴본 바람, 의도, 정서, 사회적 규칙의 이해. *한국심리학*

- 회지; 발달, 22(1), 1-18.
- Bok, S. (1978). *Lying: Moral choice in public and private life*. New York: Pantheon Books.
- Broomfield, K. A., Robinson, E. J., & Robinson, W. P. (2002). Children's understanding about white lie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1), 47-65.
- Bussey, K. (1999). Children's categorization and evaluation of different types of lies and truths. *Child Development*, 70(6), 1338-1347.
- Choi, S. C., & Lee, S. J. (2002). Two-component model of Chemyon-oriented behaviors in Korea constructive and defensive Chemyo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3), 332-345.
- Field, A. (2009).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SPSS*. Sage publications.
- Grice, H. P. (1989). *Studies in the Way of Words*. Harvard University Press.
- Happé, F. G. (1994). An advanced test of theory of mind: Understanding of story characters' thoughts and feelings by able autistic, mentally handicapped, and normal children and adult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4(2), 129-154.
- Heyman, G. D., Sweet, M. A., & Lee, K. (2009). Children's reasoning about lie-telling and truth-telling in politeness contexts. *Social Development*, 18(3), 728-746.
- Keller, M., Lourenço, O., Malti, T., & Saalbach, H. (2003). The multifaceted phenomenon of 'happy victimizers': a cross cultural comparison of moral emotion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1(1), 1-18.
- Krettenauer, T., Malti, T., & Sokol, B. W. (2008). The development of moral emotion expectancies and the happy victimizer phenomenon: A critical review of theory and appl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Developmental Science*, 2(3), 221-235.
- Lakoff, R. (1973). The logic of politeness: Or minding your P's and Q's. In: *Papers from the nin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s society*, Chicago: Chicago Linguistics Society.
- Lee, K., & Ross, H. J. (1997). The concept of lying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Testing Sweetser's folkloristic model. *Merrill-Palmer Quarterly*, 43, 255-270.
- Lee, K., Xu, F., Fu, G., Cameron, C. A., & Chen, S. (2001). Taiwan and Mainland Chinese and Canadian children's categorization and evaluation of lie and truth telling: A modesty effect.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9(4), 525-542.
- Nunner-Winkler, G., & Sodian, B. (1988).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 emotions. *Child Development*, 59(5), 1323-1338.
- Nyberg, D. (1993). *The varnished trut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pliger, M., Talwar, V., & Crossman, A. (2011). Predictors of children's prosocial lie-telling: Motivation, socialization variables, and moral understanding.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110(3), 373-392.
- Sweetser, E. (1987). The definition of lie. *Cultural Models in Language and Thought*, 43-66.
- Talwar, V., & Crossman, A. (2011). From little white lies to filthy liars: The evolution of honesty and deception in young children.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ur*, 40, 139-179.

- Talwar, V., & Lee, K. (2002). Emergence of white-lie telling in children between 3 and 7 years of age. *Merrill-Palmer Quarterly*, 48(2), 160-181.
 - Talwar, V., Murphy, S. M., & Lee, K. (2007). White lie-telling in children for politeness purpos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1), 1-11.
 - Williams, S. M., Kirmayer, M., Simon, T., & Talwar, V. (2013). Children's antisocial and prosocial lies to familiar and unfamiliar adults.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2(4), 430-438.
 - Xu, F., Bao, X., Fu, G., Talwar, V., & Lee, K. (2010). Lying and truth telling in children: From concept to action. *Child Development*, 81(2), 581-596.
 - Xu, F., Luo, Y. C., Fu, G., & Lee, K. (2009). Children's and adults' conceptualization and evaluation of lying and truth telling.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8(4), 307-322.
- 1차원고접수 : 2014. 04. 15.
수정원고접수 : 2014. 06. 03.
최종게재결정 : 2014. 06. 05.

The influence of contextual factors on 4-year-olds' understanding of lies and truths

Miri Song

Hyun-joo Song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whether 4-year-old Korean children consider situational factors when comprehending a protagonist's lie- and truth-telling. Participants answered a series of questions after listening to stories in which the protagonist lied or told the truth during a transgression (e.g., not brushing his/her teeth) or a polite interaction (e.g., thinking his/her friend's new shoes look awful). Children more positively evaluated lying during a politeness context than during a transgression context. Children also evaluated lying more positively than truth-telling during the politeness context. However, children attributed more positive emotions to protagonists who lied than to those who told the truth, regardless of context. In addition, there seemed to be gender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moral evaluation and emotion inference at the age of 4.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preschoolers understand the influence of contextual factors when evaluating moral value of lying and truth telling but not when inferring a protagonist's emotions after lying or truth telling.

Keywords : antisocial lies, white lies, moral evaluation, emotion inference